

목포대·순천대, 전남 국립의대 ‘통합의대’ 합의

양 대학 총장 “취지·필요성에 공감”
“세부사항 논의·교육부 협의에 앞장”
이주호 “선도적 통합 대학에 지원”
김영록 “지역 발전에 큰 도움 기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통합의대’ 방식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립의대 신설 방안으로 급부상한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에 대해 목포대와 순천대 양 대학 총장이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순천대 스마트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등이 14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논의를 진행한 이후 순천대·목포대 통합에 대한 긴밀한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 간 회동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1도(道) 1국립대’ 취지를 설명하며 양 대학에 협조를 요청한 뒤 “먼저 선도적으로 통합하는 대학에 더 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글로벌 대학 지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등이 14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번 1도 1국립대 취지에 따라 양 대학이 통합하게 된다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문제 또한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전남도 또한 대학통합 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대학 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학 통합이 어려운 길이고 구성원들의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1도 1국립대 취지에 따라 대학

을 통합한다면 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화합과 상생, 도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학 통합에 합의했다.

양 대학은 통합을 위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부와 협의의 통를 통해서도 대학 통합 성사를 위해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 문제는 지방소

멸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앞으로 전남도는 교육부, 양 대학과 함께 대학 통합 및 국립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만큼 통합의대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양 대학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추천 용역사를 통한 공모 방식을 통해서라도 정부에 의대 설립 대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대학 통합 방식이 정부 방침과도 방향을 같이 하며 동서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실상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 방식에 초점을 둔 두 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오지현 기자

강 시장 “한강 노벨상 수상, 인문르네상스로 화답”

“책 많이 읽는 광주 만들어 달라” 요청
시, 도서관 활성화 등 기념사업 선회

강기정 광주시장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작가의 이름을 내건 ‘기념관’ 건립이 아닌 광주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를 두고 ‘광주의 인문르네

상스 시대’라고 지칭했다.

강 시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와 대한민국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가슴 벅찬 선물을 받았다. 작가의 뜻에 따라 시민들이 책을 읽고 사는 일에 익숙해지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는 ‘전쟁에 주검들이 실려 나가는 데 무슨 잔치를 여느냐.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 잔치를 원치 않는다’는 한강 작가의 말을 가슴에 담고 성취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법을 조심스레 고민하고 있다”며 “한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청의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시민 1인1권 바우

처 책 구매, 공공·작은도서관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등 광주시가 논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밝혔다.

또 광주를 빛낸 문인들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소년이 온다 북카페 조성’ 등 인문학 활성화 방안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르네상스위원회’ (가칭)를 구성해 융복합 문화콤플렉스(가칭) 조성, 독립서점 활성화, 2026년 전국 도서관대회 개최, 노벨상 시상식 (12월10일) 광주 축하행사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한강 작가는 가장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사안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끌어 올렸고,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덕분에 5·18은 80년 5월 고립된 광주의 사건에서 전 세계가 다시 알고 공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추진해 오월정신이 세계로 확산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되는 길을 닦겠다”며 “한강 작가와 오늘의 그를 있게 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VENT 1 QR 사전접수 시 혜택
인수플리드스트랩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상업, 산업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그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플리드스트랩을 해드려요!

EVENT 2 행사 당일 무료 증정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방법은? 모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점이식 버킷햇 전원 증정!

EVENT 3 완주자들을 위한 간식 증정
걸음정에 도착하시면 푸짐한 간식들을 드려요!
* 반드시 접수 피자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